

물폭탄 피해 속출 속 태풍 '초비상'

주택·학교·농경지 침수... 낙뢰에 태국인 숨지고 70대 실종 보성 피해 집중... 내일 광주·전남 태풍 관통 예고 불안 확산

연일 쏟아지는 물폭탄으로 광주·전남에서 70대 노인이 실종되는가 하면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고, 학교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전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 198.5mm, 전남 233.8mm를 기록했다. 비는 3일까지 100~250mm가 더 내릴 전망이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인명·재산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관산구 송산교 인근 황룡강에서 A(72)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가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광주는 이번 호우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하천 일부가 무너지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남지역의 피해가 컸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0분께 영광군 염산면 한 논에서 태국인 근로자 B(여·63)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B씨는 119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밤 9시 20분께 숨졌다. 경찰은 낙뢰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군은 누적 강수량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집중됐다. 1일 오전 8시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에서는 C(여·73)씨가 자택 인근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깔렸다가 119에 의해 구조됐다.

또 이날 보성을 덕성마을에서는 주택 침수로 주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인근 아파트 2곳에서는 차량 수십대가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보성읍에 있는 보성여자중학교는 운동장 전체가 물에 잠기고 건물 1층 일부도 침수돼 긴급 복구에 들어갔다.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모원저수지에서는 제방 일부(50여m)가 붕괴돼 하류 농경지 3ha가 유실·매몰됐고, 소하천 제방 1km 가량이 유실됐다.

영광에서도 이날 오전까지 주택·농경지 침수 등 총 45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무안에선 추사 침수로 병어리 6000여 마리가 죽었다. 곡성 지방도84호선에는 토사가 흘러 도로가 통제중이고 순천 별량면 마을 안길 석축 일부(7m)가 유실됐다.

또 장흥·보성·해남·고흥·신안 농경지 2377ha가 물에 잠겼다.

장마철 집중 호우와 더불어 태풍 '쁘라삐룬'까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자체적으로 주변 정비에 나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민(47·광주시 북구)씨는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장맛비에도 하천이 붕괴되고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길거리에 걸린 불법 플래카드와 담배꽂초 등으로 막혀 있는 빗물(우수)받이라도 제대로 정비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물바다 된 보성 1일 이틀간 최대 200mm 이상 폭우가 내린 보성군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겨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강진 여고생 산 정상 이동·사망 정황 미궁

발견 일주일... 추가 단서 없어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 '주목'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 이모(16·고교 1년)양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일주일이지났지만, 추가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용의자 김모(51)씨가 이양을 만나 승용차로 산 중턱까지 이동한 정황까지는 확인됐으나, 이후 여고생이 산 정상 너머로 이동한 경로, 살해 동기, 사인 등은 오리무중이다.

1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 정상 너머 7~8부 능선에서 이양의 시신을 발견한 이후 일대에서 유류품 수색에 집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장맛비에 태풍소식까지 겹치면서 경찰이 추가 증거를 찾을 확률도 갈수록 희박해 지고 있다. 더딘 초동수사가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은 현재 이양 아버지의 친구인 김씨

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는 이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산 중턱까지 도착한 사실은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양에게 "주변에 아르바이트 소개를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한 점, 실종 당일 행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점, 이양 어머니가 집에 오자 달아나 목매 숨진 채 발견된 점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성인 남성이 혼자 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경사 70~80도의 가파른 산 너머까지 이양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양의 머리카락이 왜 훼손됐는지 등에 대한 단서나 증인 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밀부검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1차 부검에서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2~3주 이내에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1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

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 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산단 철강업체 직원

3t 크레인에 끼어 숨겨

지난 30일 오전 7시 50분께 광양시 광양 국가산단의 모 철강업체에서 직원 A(38)씨가 크레인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철강 제품의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3t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변을 당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길에서 처음 본 여성 허리 안고 '긷속 바람' 추행... 벌금 500만원



○-법원이 술에 취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안고 긷속에 바람을 불어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이영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혼자 서 있던 B(여·25)씨에게 다가간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긷속에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것.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6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7명 적발

전남경찰, 6명 구속·11명 입건

동남아에서 6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로 총책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60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회당 5000원~100만원까지 걸면서 한 사람당 많게는 6억원까지 배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동남아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표통장을 이용해 도박 판돈을 입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성 높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합의해도 기소

검찰 구속수사 확대 등 엄벌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 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빠짐없이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